

만 2세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유형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Toddler's Symbolic Play Level, Mother's Responsiveness and Verbal Interaction

최연수(Yeonsoo Choi)¹, 김명순(Myoungsoon Kim)², 배선영(Sunyoung Pae)^{3*}

¹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³Department of Child Care & Education, Baewha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oddler's symbolic play level, mother's responsiveness and verbal interaction. The subjects were 56 pairs of 24-29 months old toddlers and their mothers. The toddler's symbolic play level was classified using categories by Gowen(1995). The mother's verbal interaction was coded during a 10-minute-free play session with her toddler using Caldera, Huston, and O'Brien's(1989) categories. PICCOLO(The Parenting Interactions with Child Checklist of Observations Linked to Outcomes) by Roggman, Cook, Innocenti, Jump, Norman, & Christiansen(2009) was used to investigate the mother's responsiveness. While the mothers played with their toddlers during a 10-minute-free play session, their interaction were videotape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t*-test, and correl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levels of the toddler's symbolic play were in level 3, 'the pretending others'. Also girls spent more symbolic play time with mothers than boys. Second, mothers' responsiveness was generally high in free play with their toddlers. Mothers frequently used 'questions' 'comments' and 'fantasy statements'. Mothers with girls used more 'questions' than mothers with boy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toddler's symbolic play level, mother's responsiveness and verbal interaction. Maternal responsiveness and 'fantasy statement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mean level, and the frequency of play. The 'questions' and 'answers' were also related with symbolic play level and frequency. But 'praise' was negatively related with symbolic play frequenc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oddler's symbolic play level was related with mother's responsiveness and verbal interaction during free play.

▲주제어(Key words) : 영아 상징놀이 수준(toddler's symbolic play level), 어머니 반응성(maternal responsiveness), 어머니의 언어 유형(mother's verbal interactions)

• 본 논문은 2014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Sunyoung Pae, Department of Child Care & Education, Baewha Women's University, 34 Pirundaero 1gil, Jongno-gu, Seoul 03039, Korea, Tel: +82-2-399-0873, E-mail: sunny1214@daum.net

I. 서론

영유아에게 놀이는 즐거움을 위한 활동일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축소판과 같다. 출생 후 한두 해 동안 영아들은 사물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놀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어떤 시기보다도 급속한 발달적 변화를 겪게 된다(S. Bredekamp & C. Copple, 1997). 따라서 영아기의 학습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놀이(C. Alton, 2011; A. S. Honig, 2006; J. van Hoorn, P. M. Nourot, B. Scales, & K. R. Alward, 2003)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놀이는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종류나 질이 변화하는데, 많은 선행연구들(J. W. Gowen, 1995; J. E. Johnson, J. F. Christie, & T. D. Yawkey, 1999; C. S. Tamis-LeMonda & M. Bornstein, 1991)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놀이 특징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유아의 놀이 발달 수준은 그들의 발달적 유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필연적 결과물로 간주되어 왔다(W. E. Dixon & H. P. Smith, 2003). 생후 1년간 영아는 오감을 통해 탐색하며 그들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해 배운다(J. Belsky & R. Most, 1981; G. G. Fein, 1981). 18개월을 전후로 가작화된(pretended)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며(L. Fenson, 1984), 만 2세 때는 '마치 ~인 것처럼(as if)' 생각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징놀이를 보이게 된다(J. Belsky & R. Most, 1981; G. G. Fein, 1981; C. S. Tamis-LeMonda & M. Bornstein, 1995).

만 2세에 나타나는 상징놀이는 학자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상상놀이(imaginative play), 상징놀이(symbolic play), 가작화놀이(pretend play)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L. Nicolich(1977)는 상징놀이를 "가상놀이 또는 마치 ~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acting as if)"으로 보아 영유아가 장난감 차를 미는 것과 같은 습관적·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J. L. Singer(1973)도 상상놀이와 가상놀이를 동의어로 보면서 가작화 요소(as-if element)가 내포된 놀이라고 정의하였다. J. Piaget(1962)에 따르면 만 2세 정도의 영아는 감각운동기에 획득하게 되는 물체의 영속성, 지연모방, 언어 등과 같은 인지적 발달과 함께 상징놀이를 보인다. 18개월부터 나타나는 상징놀이의 시작은 24개월을 전후하여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지면서 내면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놀이는 영아기에 걸쳐 중요한 지적인 성취로서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G. G. Fein, 1981; J. Piaget, 1962; L. S.

Vygotsky, 1976).

한편 영아가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만나고,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동안 함께하는 사람은 부모이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영아가 출생한 순간부터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자로서 영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Y. Lee & M. Kim, 2013). L. S. Vygotsky(1978)는 성인이 근접발달지대에서 도움을 주어 영아의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고, 현재의 발달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성인은 영아에게 비계설정을 해주고 그들의 놀이를 풍부하게 해줌으로써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J. S. Bruner, 1983). 특히 영아는 어머니와 함께 놀이하면서 그 맥락 내의 사물이나 행동과 관련된 언어를 듣고 말할 기회를 갖게 되며, 어머니는 영아와 같은 사물을 공유하며 언어와 놀이에서 사물과 사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아가 생후 2세가 될 때까지 그들의 주된 놀이 파트너는 어머니로(J. Dunn & L. Dale, 1984),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영아의 놀이 상황에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영아의 놀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D. B. Connor & D. R. Cross, 2003; C. Howes & E. W. Smith, 1995; A. M. Morrissey & P. M. Brown, 2009). D. B. Conner and D. R. Cross(2003), A. M. Morrissey and P. M. Brown(2009)은 어머니의 놀이 참여 여부에서 더 나아가, 영아와 놀이 시 표현하는 어머니의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이후 자녀의 지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의 인지 능력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S. Choi, 2010; G. Kim, 2000; M. Kim & J. Sung, 2002)도 놀이에서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놀이시간을 지속시켜 주고 놀이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영아의 주 양육자이며 놀이 파트너가 되는 어머니가 영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놀이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호작용을 시도하고(T. B. Brazelton & B. G. Cramer, 1990), 이러한 시도는 부모로부터 반응적 행동을 이끌어낸다(I. Bretherton, 1992; B. Rogoff, J. Mistry, B. Radziszewska, & J. Germond, 1992). G. Kochanska(1997)는 반응성이란 부모-자녀가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나 요구를 알아채고 상호작용하는 질로 정의하였다. 놀이상황에서의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은 반응적 어머니의 행동이 영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D. N. Stern(2002)의 연구에 따르면, 열정적이지만 경험이 없고 반응적이지 못한 어머니는 자녀의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영아의 흥미와는 상관없이 부모 자신의 흥미에 따라 영아의 행동

을 강요하거나 통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과잉자극을 주고 부조화를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반응적인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영아의 리드에 따르며 영아의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고 확장시켜 줌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영아의 발달에도 기여한다(J. Ko & S. Lee, 2010).

영아의 놀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상호작용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유형을 들 수 있다. 영아는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언어에 노출된다. 즉 어머니는 언어를 통해 영아로 하여금 놀이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자극을 주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어머니의 언어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L. McDonald and D. Pien(1982)의 연구에서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는 언어적 시도가 대화를 유발시키는 상호작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질문'은 영아의 대화를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므로 놀이상황에서 영아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E. Hoff-Ginsberg, 1991), '지시'는 반대로 영아의 놀이 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 언어유형이라 할 수 있다(T. G. Cross, 1984). J. M. Faver and S. Wimbarthi(1995)는 놀이상황에서 어머니가 영아의 상징놀이를 유도하기 위해 가작화된 언어를 사용할 경우, 영아는 점차 복잡한 수준의 상징놀이 대본을 구성해 나갔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징놀이가 활성화되는 만 2세 전후의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상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유형을 분석하여 영아의 놀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징놀이가 나타나는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놀이 상황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그와 관련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아와의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적 유형과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질의 중요성을 밝히고, 영아-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제언 및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은 어떠하며, 이는 영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영아와 상징놀이에서 어머니의 반응성과 언어유형은 어떠하며, 이는 영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유형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

놀이는 영유아에게 학습의 장이며 발달의 증거로써 나타난다. 따라서 영아의 놀이행동 및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을 얻게 된다(L. M. Rossetti, 2001). 영유아의 초기 놀이행동은 영유아의 인지발달 정도를 반영하는데(L. Nicolich, 1977; J. Piaget, 1962; L. M. Rossetti, 2001), 특히 2세 초기에 나타나는 상징놀이는 정신적 표상을 활용하여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가상-전환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가작화하는 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E. Yoon, 2010). 상징놀이를 통해 나타나는 영아의 가작화 능력의 발달은 영아의 사고가 감각운동기적 지식에서 표상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 H. Fiese(1990)는 어머니의 모델링과 영아의 상징놀이 발달을 연구하면서 성인을 모방하는 영아의 자발적인 반응은 자신의 인지발달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상징놀이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 발달에 관한 연구들(L. Fenson, 1984; J. W. Gowen, 1995; C. Howes, C. O. Unger, & L. B. Seigner, 1989; C. S. Tamis-LeMonda & M. Bornstein, 1991)에 따르면 영아는 12~13개월에 자신을 향한 가작 행동을 보이며, 18~19개월이 되면 인형과 같은 타인에 대하여 가작화된 행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가작화된 행동인 사물 대치가 20개월을 전후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로 가작화해 보이는 놀이행동이 나타난다. 23개월 이후에는 사물 없이 상상적 존재를 가상하는 놀이가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H. Moon(1996)은 만 2세가 감각운동 말기로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며, 표상능력의 출현을 보여주는 상징놀이가 나타나는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라고 밝히고 있다.

만 2세 전후 영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상징놀이 수준에 대해 연구자들은 가작화의 요소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기도 한다. A. Damast, S. Tamis-LeMonda and M. Bornstein(1996)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상징놀이를 24단계로 세분화하였는데 영아 놀이 범주의 각 단계는 7

가지의 중요한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첫째, 단순한 탐색에서 비상징놀이로의 전환이다. 둘째는 비상징적 단계에서 상징적 단계로의 전환이며, 셋째는 자기를 향한 가상에서 타인을 향한 가상, 넷째는 생물을 향한 가상에서 무생물을 향한 가상이다. 다섯째는 단 한 개의 가상 행동에서 두 개 이상 연결된 가상행동으로의 전환이며, 여섯째는 대리인을 통한 가상에서 투사를 통한 가상, 일곱째로 대체를 통한 가상이 중요한 전환에 속한다.

영아의 상징놀이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서는 영아의 월령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지만,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아가 상징놀이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물로 다른 사물을 가상하여 사용하는 사물대체 능력에 관한 여러 연구(G. G. Fein, D. Johnson, N. Kosson, L. Stork, & L. Wasserman, 1975; V. C. McLoyd, 1980)에서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많은 양의 상징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들의 경우 놀이감의 구조가 낮을수록 상징놀이에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 Woo(2004)가 위의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고, Y. Kim(2002)은 19개월부터 48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들 중 더 어린 월령인 19개월부터 36개월에 해당하는 영아들의 경우에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상징놀이를 더 많이 하였다고 밝혔다.

2. 어머니의 반응성과 언어유형

어머니는 영아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영아의 요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영아가 보낸 신호에 반응하면서 영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준다. 어머니의 반응성(maternal responsiveness)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어머니의 반응성은 자녀의 상태나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주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해주며, 자녀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행동이나 태도로 보고 있다(M. S. De Wolff & M. H. van IJzendoorn, 1997; S. H. Landry, K. Smith, P. R. Swank, M. A. Assel, & S. Vallet, 2001; C. S. Tamis-LeMonda & M. H. Bornstein, 2002). 어머니 반응성에 대해 연구한 S. H. Landry et al.(2001)에 따르면 효율적인 반응성의 특징은 어머니와 자녀 모두가 상대방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고 반응하는 것이다(A. W. Harrist & R. M. Waugh, 2002). 따라서 민감하고 반응적인 어머니는 어린 자녀가 상호작용을 시도하려는 신호에 반응하면서

영아의 속도와 상태에 맞춰 행동하는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된다(A. W. Harrist & R. M. Waugh, 2002).

영아-어머니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여 어머니의 반응성을 살펴본 K. E. McFadden and C. S. Tamis-Lemonda (2013)는 놀이 상황에서 영아의 신호(cue)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15개월과 25개월 영아-어머니 160쌍을 대상으로 10분간의 놀이 상황을 녹화하여 어머니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반응적인 행동이 영아의 인지적 능력을 설명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15개월 영아와 25개월 영아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U. Frodi, L. Bridges and W. Grolnick(1985)은 만 2세 영아들이 어머니와 놀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놀이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행동의 경우, 어머니가 영아의 놀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수준과 민감하게 영아에게 반응해주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반응적인 모습을 보인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통제적인 상호작용을 한 어머니들의 영아들보다 놀이감을 가지고 일정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더 높은 몰입도와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일상을 함께 하고 놀이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언어에 노출되는 기회를 가지고 놀이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언어 유형을 관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영아에게 시도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은 성인에게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E. Snow(1972)에 의하면 어머니는 영아와 대화할 때 간단하고 길이가 짧은 문장을 주로 사용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이용한 반복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천천히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L. A. Newland, L. A. Roggman and L. K. Boyce(2001)는 11~13개월 된 영아와 14~17개월 영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언어적 전략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11~13개월 영아의 어머니들은 영아의 놀이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자기 주도적이며 지시적인 언어를 많이 보인 반면, 영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는 영아의 주도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적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적 수준에 따라 다른 언어적 전략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E. Yoon, 2010). 다른 연구(B. H. Fiese, 1990)에서는 어머니가 '질문'과 '지시'와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를 촉진하고자 할 때 영아의 놀이수준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질문'과 '지시'가 영아의 놀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유형임을 밝혔다. P. Lyytinen, K. Eklund and H. Lyytinen(2003)

은 어머니의 언어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컵에 주스를 따라 마실까?’와 같이 상징놀이를 유도하는 가작화된 언어유형과 ‘엄마에게 공을 던져라.’와 같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언어유형을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가작화된 언어유형이 나타날 때 영아는 상징놀이에 대한 단서를 찾고 이에 참여하게 됨을 밝혔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G. Kim(2000)이 영아와 어머니의 언어 유형을 영아의 월령과 상황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의 3가지 상황 중 놀이 상황에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은 13~20개월에는 ‘지시하기’가, 그리고 21~24개월에는 ‘질문하기’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 영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언어유형 중 지시하기 유형은 줄어들고 질문하기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H. Moon(1996)는 어머니 언어유형에 따른 영아 가상놀이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20~35개월 영아들과 함께하는 가상놀이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어머니가 ‘지시’와 ‘질문’을 통한 언어적 행동을 할 때 영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상징놀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어머니의 언어유형별로 영아의 상징놀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유형 간의 관계

영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놀이 기술 발달의 변화에 맞춰 민감하게 이해해 줄 때에 더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놀이를 하게 된다(A. Damast et al., 1996). 즉 영아의 놀이에 조화를 이루는 성인은 영아에게 최적의 도전을 주며 놀이를 제안하게 된다(S. Choi, 2010). 이러한 성인의 반응은 영아로 하여금 수준 높은 생각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인지적 능력을 높이도록 작용하여서 보다 복잡한 놀이 형태로 이끈다(W. Dixon & C. Shore, 1993).

선행연구들은 영아가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놀이할 수 있는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영아의 놀이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 Damast et al.(1996)은 자유놀이 상황을 관찰하여 21개월 영아와 놀이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행동은 영아의 놀이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어머니는 영아의 놀이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 놀이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영아가 보이는 놀이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함께 놀이해 주고자 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영아가 가상하려는 초보적인 시도를 해석하여 확장하였으며, 그러한 어

머니와 함께 놀이하는 영아들이 상징놀이 참여 시간이 더 길었다. 또한 영아의 놀이빈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놀이 주제도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많은 종단적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언어적인 자극 및 반응의 적절성(appropriateness) 등이 영아의 놀이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J. V. Carew, 1980; S. E. Cohen & L. Beckwith, 1979; S. L. Olson, J. E. Bates, & K. Bayles, 1984). S. D. Calkins and M. C. Johnson (1998)의 연구는 영아 놀이에 부적절하게 참여하는 등의 어머니의 반응적이지 못한 행동은 영아가 놀이를 중단하거나 놀이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S. J. Erickson, E. Q. Montague, P. C. Maclean, M. E. Bancroft and J. R. Lowe(2012)는 18~2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융통성과 영아의 놀이 정교성(play sophistication)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어머니가 민감하게 영아의 흥미나 몰입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행동하여 반응할 때, 영아의 놀이 수준이 더욱 확장되고 발달될 수 있었다.

놀이 시 나타나는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W. L. Haight and P. J. Miller(1993)는 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어머니가 영아의 상징놀이를 격려하기 위해 정교한 언어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영아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언어표현을 모방하여 놀이 안에서 발화하고 놀이를 지속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L. M. Noll and C. G. Harding (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상징놀이를 지지하며 가작화된 말을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상징놀이 빈도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M. Nielson and T. Christie(2008)의 연구에서도 걸음마기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영아가 어머니의 가작화된 언어유형을 모방하며 더 많은 상징놀이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언어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의 모델링에 기초한 자신만의 고유한 가작화 수준을 창조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정교하고 가작화된 언어유형을 통해 영아와 상호작용 할 때, 영아는 상징놀이를 지속하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놀이로 확장할 수 있었다.

한편, K. Manning and A. Sharp(1997)는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기초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영아 놀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가 놀이를 지속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맥락이나 틀을 무너뜨려 결국 놀이를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E. Shin, M. Kim, D. Shin, J. Lee and S. Choi(2002)는 놀이에서 어머니의 개입이 유아의 놀이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으며, 놀이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만 1세 이후의 영아는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덜 의존적이고 스스로가 주도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아의 주의를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주도성과 개입이 높은 어머니보다 영아가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반응적인 어머니들이 긍정적 영향력이 더 높았다(P. Dunham & R. Dunham, 1992; M. Tomasello & M. J. Farrar, 198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영아 놀이에서 행해지는 어머니의 자극과 개입이 그 유형 및 적절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아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이 달라져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놀이에서 영아의 발달 수준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세심한 어머니의 개입과 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놀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4개월에서 29개월 영아 56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

다. 영아 놀이에 대한 선행연구들(J. W. Gowen, 1995; C. S. Tamis-LeMonda & M. Bornstein, 1991)이 영아가 18개월을 전후로 가작화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밝혔고, 만 2세가 표상능력을 보여주는 상징놀이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한 것(H. Moon, 1996)에 근거한 것이다. 월령차로 인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관찰 당시 24개월에서 29개월까지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은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및 가정에 전화로 연구협조를 의뢰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영아-어머니 총 59쌍의 가정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영아-어머니 총 59쌍 중 3쌍은 영아가 주어진 놀이 시간동안 연구자가 제시하는 놀이감으로 놀이하기를 거부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영아-어머니 56쌍으로 인 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영아는 남아 27명, 여아 29명이었고, 평균 25.90개월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30~34세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66.1%), 다음으로 35~39세가 11명(19.6%), 25~29세가 6명(10.7%)으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88세($SD=2.9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30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이 16명(28.6%), 전문대 졸업이 6명(10.7%), 고등학교 졸업이 4명(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머니 56명 중 44.6%에 해당하는 25명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의 경우 500만원 이상인 가정이 17가정(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400만원이 16가정(28.6%),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N=56)

Variables		N	%	
Toddler	Sex	boy	48	
		girl	52	
	Age(months) (range)	25.90 (24-29)	56	100
Mother	Age (years)	25-29	6	10.7
		30-34	37	66.1
		35-39	11	19.6
		40-44	2	3.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	7.1
		college	6	10.7
		university	30	53.6
		graduate school	16	28.6
	Employment	Unemployment	25	44.6
		Employment	31	55.4
Monthly family income (10,000 KW)	200- under 300	12	21.4	
	300- under 400	16	28.6	
	400- under 500	11	19.6	
	500 & more	17	30.4	

그리고 200~300만원이 12가정(21.4%), 400~500만원 가정이 각각 11가정(19.6%)인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 분석 범주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은 J. W. Gowen(1995)이 놀이행동의 상징 수준에 따라 세분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척도는 J. Piaget(1962)의 상징놀이 발달 단계를 포함시켜 상징놀이행동을 9개 수준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9개 수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수준은 '전상징'으로 상징놀이와 비슷한 놀이를 하지만 실제 상징놀이를 하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예: 전화기를 잠깐 귀에 대기). 2수준은 '자기상징'으로 상징행동이 명백히 보이는 단계이나 상징행동이 자신에게 향해있다(예: 컵을 들고 먹는 행동하기). 3수준은 '타인상징'으로 상징행동이 자신에서 타인이나 사물로 향해 있어서, 내가 아닌 타인이나 사물에게 놀이행동을 나타내거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다(예: 트럭을 바닥에서 밀며 트럭소리 내기, 인형에게 우유병이나 컵으로 음식을 먹이기). 4수준은 '대치'로 어떤 사물을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가상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블록이 '우유병'인 것처럼 하여 인형에게 먹이기, 밀가루 반죽을 접시위에 올리고 햄버거라고 하기). 5수준은 '상상적 존재'로 대상물, 사람, 동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징하는 것이다(예: 오토바이에 탄 흉내를 내고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빈 주전자를 이용해 컵에 따르면 '커피'라고 말하기). 6수준은 '활동 대리인'으로 놀이감(인형)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상하여 놀이감이 상징 활동에서 활동 대리인이 된다(예: 인형이 스스로 먹는 것처럼 인형 손을 인형 입에 대기). 7수준은 '연속적 이야기가 없는 상징놀이'로 단순한 가상행동을 반복하여 여러 대상에게 적용한다(예: 엄마에게 음료수를 주고, 인형에게도 주기). 8수준은 '연속적 이야기가 있는 상징놀이'로 상징행동에서 하나 이상의 도식을 사용하되 도식이 연속적으로 연결된다(컵을 휘젓고, 마신 후에 "엄마 맛있어요."라고 말하기). 9수준은 '계획'으로 명확한 계획에 의해 진보된 상징놀이를 진행해가는 수준이다(예: 우유병을 인형 입에 대기 전에 아기에게 우유를 먹일 것이라고 말하기). 본 연구에서 이밖에 '기타' 범주를 추가하여 사용하여 상징놀이에 포함되지 않는 행동(기차 연결시키기, 블록 빨기, 자동차를 접시에 올리기 등)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S. Cho(2010)의 관찰방법을 참고하여, 분석 기준에 따라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놀이하는 10분 동안 나타난 영아의 놀이행동을 시간표집방법을 사용하여 15초 관찰, 5초

기록으로 각 시간 간격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놀이행동의 수준을 관찰기록표에 기록하였다. 따라서 한 영아 당 총 30회의 놀이행동이 분석되었다.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로 파악하기 위해, 상징놀이 빈도와 상징놀이 수준을 산출하였다. '상징놀이 빈도'는 영아가 보인 상징놀이 범주의 1수준에서 9수준에 해당하는 놀이횟수의 합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M. Kim & J. Sung, 2002). 또한 '상징놀이 수준'의 경우, 영아별로 놀이에서 보인 상징 놀이행동마다 J. W. Gowen(1995)이 제시한 1~9수준으로 평가하여 표시하고 그 평균을 계산하여 '상징 놀이의 평균수준'으로 산출하였다.

영아의 상징놀이 행동은 대학원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으로 하는 박사과정생 보조연구자 1명과 본 연구자, 2명이 관찰하였다. 분석범주에 대해 이해한 뒤, 본 연구 대상과 동일한 연령의 영아-교사 4쌍의 상징놀이 동영상 분석하였다. 불일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관찰자 훈련 후, 예비조사 때 촬영했던 영아-어머니 4쌍의 놀이 동영상을 보며 관찰자간 일치도로 Cohen's Kappa계수를 산출한 결과 .94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반응성 분석 범주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반응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 A. Roggman, G. Cook, M. S. Innocenti, N. V. Jump and K. Christiansen(2009)의 '영아-부모 상호작용 분석기준(PICCOLO; Parenting Interactions with Children: Checklist of Observations Linked to Outcomes)'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애정(Affection), 반응성(Responsiveness), 격려(Encouragement), 교수(Teaching)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반응성 범주만을 사용하였다. 반응성 범주는 7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놀이에서 영아의 주도성 및 자율성과 그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을 분석한다. 구체적인 7개 문항의 내용은 어머니가 영아가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지, 영아의 흥미나 요구에 맞게 속도나 활동을 변화시키는지, 영아의 활동 또는 관심의 변화에 융통적인지, 영아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는지, 영아의 정서적 표현에 반응하는지, 영아가 말 하거나 소리 낼 때 쳐다보는지, 영아의 말이나 소리에 대답하는 지이다. 각 문항은 0~2점으로 채점되어 가능한 최고점수는 1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에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부모 상호작용 분석기준(PICCOLO)'의 문항별 관찰 지침에 따라 영아와 어머니 놀이 상황 동영상을 보

며 각 문항의 어머니 반응성 행동 정도에 따라, 각각 전혀 관찰 되지 않았을 경우 0점, 드물게 관찰되거나 반응성의 정도가 약할 경우 1점, 명확하게 높은 빈도로 관찰되며 그 반응성의 정도가 강할 경우 2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놀이 시 어머니의 반응성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는 대학원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한 박사과정생 보조 연구자와 1명과 본 연구자, 2명이 관찰하였다. 분석범주에 대해 이해한 뒤, 본 연구 대상과 동일한 연령의 영아-교사 4쌍의 상징놀이 동영상 분석하였다. 평정결과가 불일치한 내용에 대해서 평정기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예비조사 때 촬영한 영아-어머니 4쌍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반응성을 분석하여 관찰자간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관찰자간 일치도 Cohen의 Kappa계수로 .96이었다.

3) 어머니의 언어유형 분석 범주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놀이하는 상황에서 나타내는 어머니의 언어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 Cho(2010)가 사용한 Y. M. Caldera, A. C. Huston and O'Brien(1989)의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분석범주'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 Cho(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범주 이외에, 예비조사를 기초로 영아의 놀이행동이나 언어에 짧게 반응하는 어머니의 '대답'을 새로운 범주로 추가하여 총 10가지 범주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시'(영아에게 놀이를 안내하거나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함), '질문'(놀이감이나 놀이 상황에 대해 영아에게 물음), '교수'(적절한 놀이나 놀이감에 대해 영아에게 가르쳐 줌), '칭찬'(영아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함), '상상적인 말'(상징 놀이를 하면서 인형에게 말하는 척 하거나 자동차 소리 등을 냄), '부정'(영아가 관심 있어 하는 놀이감이나 흥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함), '관계 없는 말'(놀이감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함), '설명'(영아와 어머니가 하고 있는 행동을 묘사하거나, 놀이감이나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 설명함), '반복'(영아의 말을 따라 함), '대답'(영아의 말이나 행동에 적절하게 대답함)이다.

어머니의 언어유형은 영아와 어머니가 놀이를 하는 10분 동안 어머니가 사용한 말을 모두 전사한 후, 동영상을 다시 보며 어머니 발화 당 위의 분석기준에 따라 각 범주별 빈도를 표시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동일한 내용의 발화가 2회 이상 연속하여 반복되었을 때는 1회로 간주하였다. 어머니의 언어유형은 대학원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한 보조연구자 1명과 연구자가 범주에 대해 이해한 후, 연구대상과 동일한 연령의 영아-교사 4쌍의 상징놀

이 동영상을 함께 보며 교사의 언어를 분석하며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치는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예비조사 때 수집한 영아-어머니 4쌍의 상호작용 비디오를 전사한 자료와 동영상을 살펴보고 분석 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Cohen의 Kappa 계수 .97이 산출되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놀이감의 적절성, 놀이 상황 제시의 어려움, 분석 기준의 적합성, 어머니용 질문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던 연구대상과 같은 월령의 영아와 그의 어머니 4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놀이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놀이 시간은 선행연구들과 같은 10분으로 결정하였다. 놀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영아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가정의 다른 놀이감을 모두 정리하고 영아가 평소 가정에서 놀이하던 익숙한 장소에서 본 연구용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연구자가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아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놀이 상황 비디오 촬영에 동의의를 구하고 방문일자 및 시간을 정하여 가정 방문을 실시하였다. 방문 시간은 영아가 가장 활발하게 놀이하는 오전 시간과 낮잠 후 오후 시간 중 가능한 시간으로 하였다. 가정방문 시에는 본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를 안내하며 연구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였다. 놀이 상황 비디오 촬영은 놀이감이 모두 제시된 상태에서 영아나 어머니가 놀이감에 접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10분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놀이감은 영아의 상징놀이에 관한 선행연구(S. Cho, 2010; A. Damast et al., 1996; L. A. Newland et al., 2001; M. Kim & J. Sung, 2002)에 기초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구체적인 놀이감은 소꿉놀이자료 6가지(후라이팬, 접시, 컵, 반으로 갈라지는 계란모형, 손가락, 바나나 1개씩), 탈 것 2가지(분리, 연결되는 기차 3량, 자동차), 인형 종류 3가지(아기 인형, 호랑이 인형, 인형 담요), 형질공 1개, 정육면체 블록(2.5×2.5×2.5cm) 9조각(빨강, 파랑, 노랑 각각 3조각씩)이었다. 놀이 상황의 비디오 촬영이 끝나면 어머니에게 어머니용 질문지를 제공하여 영아와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놀이의 평균수준,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영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유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 및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성차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 상황에서 나타난 영아의 상징놀이의 평균수준과 놀이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영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체 영아의 상징놀이 평균수준은 3.10(*SD*=1.16)으로 상징놀이 발달단계에서 3수준인 ‘타인을 향한 상징놀이’를 하는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인형에게 계란 모형 음식을 먹이거나 인형을 안고 재워주기, ‘부웅’자 동차 소리를 내며 굴리기, 후라이팬에 계란 모형을 담아 요리하기, 접시에 계란 모형을 담아 어머니에게 먹으라고 주기, 바나나 모형을 인형에게 먹이기 등의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상징 놀이 수준에서 영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관찰된 상징놀이 행동의 빈도를 보면 표집 된 총 30회 중 전체 영아의 상징놀이 빈도는 평균 14.68회(*SD*=4.97)였다. 상징놀이의 빈도는 여아가 평균 17.28회(*SD*=4.82)로 평균 12.07회(*SD*=4.67) 놀이한 남아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2, p < .05$).

2.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유형과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반응성 및 언어유형의 차이

어머니가 놀이에서 영아에게 보이는 반응성과 언어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영아의

Table 2. *t*-test for Means Difference between Toddler’s Sex on the Symbolic Play

Variables		Total(N=56)	Boy(n=27)	Girl(n=29)	<i>t</i>
		M(SD)	M(SD)	M(SD)	
symbolic play	mean level	3.10(1.16)	2.95(1.13)	3.25(1.19)	- .97
	frequency	14.68(4.97)	12.07(4.67)	17.28(4.82)	-2.52*

* $p < .05$

Table 3. *t*-test for Mean Difference between Toddler’s sex on the Mothers’ Responsiveness and Verbal Interaction

		total(N=56)	boy(n=27)	girl(n=29)	<i>t</i>
		M(SD)	M(SD)	M(SD)	
mother’s responsiveness		11.46(2.34)	10.89(2.41)	12.00(2.19)	-1.81
	directives	13.96(10.20)	14.26(10.47)	13.69(10.12)	.21
	questions	44.21(16.34)	41.74(15.10)	48.52(17.37)	-2.47*
	teaching statements	1.41(1.80)	1.70(1.88)	1.14(1.71)	1.18
	praise	3.14(3.42)	3.78(3.98)	2.55(2.73)	1.35
mother’s verbal interaction		16.71(9.43)	17.56(10.03)	17.86(9.01)	- .12
	negative comments	.79(1.26)	.93(1.36)	.66(1.17)	.80
	unrelated statements	1.63(1.69)	1.89(1.72)	1.38(1.66)	1.13
	comments	31.48(10.13)	31.52(9.20)	33.38(11.02)	- .68
	repetitions	7.41(5.30)	6.96(5.89)	7.83(4.74)	- .61
	answer	2.45(1.94)	2.85(1.59)	2.07(2.19)	1.52
	total	125.05(31.48)	123.11(30.78)	126.86(32.56)	- .44

* $p < .05$

성별에 따른 차이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반응성은 14점 만점 중 평균 11.46점($SD=2.34$)으로 영아에게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 언어유형을 보면 어머니가 영아와 10분간 놀이에서 보인 언어적 행동은 평균 125.05회($SD=3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발화는 1분당 약 12.5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유형의 하위 범주 중에서는 ‘질문(“이 차가 좋아?” “○○이, 계란 좋아하지? 계란 요리 하는 거야?”)’ ($M=44.21, SD=16.34$)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설명(“물을 마시는구나.” “○○이 기차가 칙칙폭폭 가네.”)’ ($M=32.48, SD=10.13$), ‘상상적인 말(“배고파요. ○○가 맛있는 거 만들어 주세요.” “부웅부웅, 운전 잘 해서 갔다 와.”)’ ($M=17.71, SD=9.43$), ‘지시(“이건 이렇게 끼워 봐”. “후라이팬에 넣어서 해야지.”)’ ($M=13.96, SD=10.20$)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이 중 ‘질문’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7, p < .05$). 즉 어머니는 놀이에서 영아와 상호작용할 때에 영아가 놀이감이나 놀이에 대해 간단한 답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질문하거나 영아가 사용하는 놀이감이나 놀이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많았고, 질문의 경우에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들은 영아와 놀이하며 놀이감이나 놀이에 대해 가르치는 말($M=1.41, SD=1.80$)이나 부정($M=.79, SD=1.26$)을 가장 적게 하였다.

3.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 유형 간의 관계

영아가 어머니와 놀이 할 때 나타나는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어머니의 반응성, 언어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징놀이의 빈도의 경우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여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 간 상관계수 및 편상관계수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어머니의 반응성은 영아의 상징놀이 평균수준($r=.35, p < .01$)과 상징놀이 빈도

($r=.39, p < .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상징놀이 평균수준이 더 높았고, 상징놀이도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영아의 상징놀이와 어머니 언어유형간 관계를 살펴보면, 상징놀이 평균수준($r=.39, p < .01$)과 놀이빈도($r=.29, p < .05$) 모두 어머니의 ‘상상적인 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빈도의 경우 ‘질문’($r=.28, p < .05$)과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놀이 평균 수준은 어머니의 ‘대답’($r=.31, p < .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놀이빈도($r=-.30, p < .05$)는 어머니의 ‘칭찬’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상황에서 영아에게 상상적 말을 많이 해줄수록 영아의 상징놀이의 평균수준, 놀이빈도 수준이 모두 높았고, 어머니가 영아에게 적절한 대답을 많이 해 주었을 때에 상징놀이 수준이 높아졌으며, 놀이감이나 놀이 행동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수록 영아의 상징놀이 빈도 또한 높아졌다. 반면 어머니가 영아에게 칭찬을 많이 할수록 영아의 상징놀이 빈도가 낮아졌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와 그의 어머니 56쌍이 자유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상징놀이 평균수준은 3수준으로 인형에게 음식을 먹이거나 자동차 소리를 내며 ‘타인을 향한 상징놀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만 2세 영아가 타인을 향한 상징놀이를 가장 많이 했다는 선행연구(S. Cho, 2010; M. Min & S. Lee, 2004; A. Walker-Andrews & R. Kahana-Kalman, 1999; E. Yoon, 2010)의 결과와 일치하여 기존의 결과를 공고히 한 것이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Symbolic Play Level, Mothers’ Responsiveness and Verbal Interaction (N=56)

	mother’s responsiveness	mother’s verbal interaction											
		directives	questions	teaching statements	praise	fantasy statements	negative comments	unrelated statements	comments	repetitions	answer	total	
symbolic play	mean level	.35**	.02	.19	-.02	-.20	.39**	-.09	.03	-.24	.26	.31*	.18
	frequency ¹⁾	.39**	-.00	.28*	-.05	-.30*	.29*	-.06	-.17	-.10	.19	.24	.20

* $p < .05$, ** $p < .01$

1)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control: toddler’s sex)

상징놀이 빈도의 경우, 영아가 주어진 놀이감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10분 간 놀이상황에서 관찰 표집된 총 30회의 놀이행동 중 14.68회로 나타났다. 이는 24~29개월의 영아들에게서 상징놀이가 나타나지만 아직은 우세하지 않은 시기임을 의미한다. 한편 상징놀이 행동이 나타난 빈도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상징놀이를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이 남아보다 상징놀이를 더 많이 하며, 상징놀이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한다고 밝힌 선행 연구들(G. G. Fein et al., 1975; V. C. McLoyd, 1980; S. Woo, 2004)과 같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작행동이 나타나는 19개월 경부터 여아들에서 가작행동이 관찰되는 경우가 남아보다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인 24-29개월 월령대의 남아와 여아를 비교했을 때,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보다 이른 시기부터 상징놀이를 경험하여 상징놀이에 더 익숙한 상태여서 그 빈도가 더 높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 대상 영아들의 상징놀이 평균적인 수준은 타인을 향한 상징놀이 수준이었다. 즉, 주어진 놀이감이나 놀이 상대에 대해 상징을 나타내는 시기이므로 영아에게 제공되는 놀이감이 무엇인지에 따라 놀이의 내용과 형태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도구로 영아에게 주어진 놀이감 21개는 소꿉 그릇류 6가지, 인형류 3개, 탈것 2개, 네모난 블록 9조각, 공 1개였다. 여아가 선호하여 먼저 관심을 보이는 놀이감(그릇, 인형류)은 탐색 시간이 짧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상징놀이를 전환될 수 있는 놀이감임에 비해, 많은 남아들이 우선적으로 흥미를 보이는 공이나 탈것은 이리 저리 굴리거나 공 던지기, 탈 것 놀이감 중 3량 기차를 연결하고 해체하며 놀이감의 기본 기능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먼저 보낸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영아가 놀이감에 접근할 때부터 10분 간이라는 관찰 시간 안에 남아에게서는 상징놀이가 덜 관찰되어 나타난 결과, 즉 표집 시간의 대표성이 떨어져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게 영아의 상징놀이 양에는 성차가 없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결과들(C. Howes et al., 1989; J. E. Johnson et al., 1999; Y. Kim, 2002)도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놀이감의 선정, 관찰 상황 등 영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어머니가 영아와 놀이를 할 때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가 영아에게 보이는 언어유형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들은 '질문'과 '설명'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상황에

서 나타나는 어머니 언어 유형을 연구한 E. Yoon(201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놀이상황은 아니지만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선행연구들(M. Kim & Y. Chae, 1999; Y. Lim, 2002; M. L. Laakso, A. M. Poikkeus, & Lyytinen, 1999)에서도 어머니가 영아에게 '질문'과 '진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18-29개월 영아는 수용어휘가 표현어휘의 1.7배이기에(Y. Lim, 2002), 아직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보다 더 익숙한 영아에게 어머니가 놀이감이나 놀이상황을 진술하며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L. M. McGee and D. J. Richgels(1996)에 의하면 18개월~24개월 사이에 영아가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이전에 비해 급증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이 시기의 영아가 할 수 있는 한 두 단어의 반응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E. Hoff-Ginsberg, 1991)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영아는 '무엇'이나 '어디'에 대한 질문을 주로 사용한다. 성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영아와 상호작용할 때에 언어적 표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영아에게 '무엇'과 '어디'에 대한 질문을 주로 사용하고, 영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누가'에 대한 질문과 '누구의'라는 질문, 그리고 이후에 '왜', '언제'에 해당하는 질문 등 그 내용은 변화되나 지속적으로 '질문'의 유형을 사용함을 발견하였다(E. Hoff-Ginsberg, 1991). 우리나라의 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G. Kim, 2000)에서도 자유놀이 상황과 책읽기 상황에서 어머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유형이 '질문'이었음을 밝히며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머니 언어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영아와 놀이할 때 나타나는 어머니의 반응적인 행동은 영아의 가작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M. H. Bornstein, 1989; M. H. Bornstein, C. S. Tamis-LeMonda, C. S. Hahn, & O. M. Haynes, 2008)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응성이 높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상징놀이 행동이나 놀이 수준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상징 놀이의 주요 요소인 가작화 능력을 확장하여 놀이를 지속해 주기 위한 질문의 형태("인형에게 무슨 노래 해주면 좋아할까?", "계란으로 또 다른 요리도 해 줄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 기차예요?")의 언어 유형을 많이 보였다고 해석된다.

한편,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자녀와 놀이상황에서 '질문'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 Go(2003)는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서 어머니 언어 유형과 영아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어머니의 말에 대한 '모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아

는 '자발적 대화'(예: "아기가 코 자는 거야.")를 더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질문에 반응하고 남아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영아와 어머니 사이의 상호작용이란 어머니가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영아와 어머니가 상호 조절하는 쌍방향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M. Kim, O. Hyun, & J. Rha, 2007)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한 쪽이 보이는 언어 유형은 상대의 반응을 결정짓는 경향이 있다. 즉 영아의 반응이 어머니의 그 다음 반응이나 언어적 유형을 결정짓게 하는 것으로, 어머니는 남아의 어머니 말에 대한 '모방'이나 '무반응'에 질문하기보다 여아가 시도해 온 '자발적 대화'나 어머니 질문에 대한 여아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 표현할 빈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어머니가 영아와 놀이 시 사용하는 언어 유형은 영아의 언어발달 수준과 어머니 반응성의 특징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만 2세 초기에 일어문이나 이어문을 자주 사용하고, 짧은 문장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영아의 언어 발달의 특징(L. M. McGee & D. J. Richgels, 1996)을 고려하거나 영아가 상징놀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질문을 가장 많이 하거나 수준에 맞는 설명을 자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은 어머니의 반응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상징놀이 평균수준과 놀이빈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M. H. Bornstein et al.(2008)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반응적인 어머니가 영아와 어머니의 가작화 놀이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반응성이 높은 어머니, 즉 자녀의 행동에 대해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주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며, 자녀의 주도성을 인정하여 자녀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어머니의 행동이나 태도는 영아들이 나타내는 상징놀이 행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아는 자신의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여, 놀이 상황을 보다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자신의 목표를 조율하면서 더 복잡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였다. 반응성이 높은 어머니의 영아는 이러한 과정과 분위기 속에서 상징놀이의 빈도가 더 높고, 놀이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아-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M. Kim and G. Gwak(2004)은 놀이상황에서 어머니의 반응성은 어머니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개입보다는 적극적인 반응이 놀이를 지속시키는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반응적인 어머니일수록 영아의 놀이를 지속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놀이의 수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상징놀이는 타인에 대한 상징이 일어나는 단계로(J. W. Gowen, 1995; C. S. Tamis-LeMonda & M. Bornstein, 1991),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과 성인에 대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 영아의 모델링과 상호작용의 주된 대상인 어머니가 영아가 표현하는 상징놀이 행동이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공유하는 반응적인 행동은 영아의 상징놀이 빈도를 높이고, 놀이수준을 높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아의 놀이행동과 어머니의 언어유형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상상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상징놀이의 평균수준, 놀이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놀이상황에서 가작화된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상징놀이가 증가함을 밝힌 선행연구(M. L. Laasko et al., 1999; P. Lyytinen et al., 2003; M. Nielson & T. Christie,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가 영아의 상징놀이에 참여해 그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상징놀이를 더 자극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놀이의 수준과 지속시간도 증가시킨다는 설명(M. Lee, 1999)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가작화된 말은 상징놀이에서 영아가 놀이하는데 모델링이 될 수 있으며(M. Nielson & T. Christie, 2008), 가작화된 상황을 만듦으로써 영아로 하여금 상징놀이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상징놀이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과 관련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상상적인 말'이외에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상관을 보인 어머니 언어유형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것이 많이 나타날수록 놀이빈도가 높아지거나 놀이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칭찬'은 그 양이 많을수록 상징놀이의 빈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L. McDonald and D. Pien(1982)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대화를 유발시키는 상호작용이라고 보았다. 즉 '질문'은 비촉진적인 '지시'(T. G. Cross, 1984)와는 달리 영아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촉진적 상호작용이 되는데(E. Hoff-Ginsberg, 1991),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이 '질문'을 통해 영아가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가 더 전개되고 확장되는 데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어머니의 '칭찬'은 영아의 상징놀이를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영아에게 해준 칭찬은 '잘했네', '최고다'와 같이 구체적인 상징놀이 내용과 연관 없이 피상적으로 주어지는 피드백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성으로 하는 칭찬의 반응이 영아의 놀이를 지지하지 못한다고 밝힌 J. Trawick-

Smith(2007)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놀이 상황과 관련 없는 말로 하는 성인의 개입은 놀이의 맥락을 깨고, 결국 놀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S. D. Calkins & M. C. Johnson, 1998; K. Manning & A. Sharp, 1990)는 것을 고려할 때, 영아의 상징놀이 과정에 어머니의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놀이의 지속과 전개를 방해하여 놀이 빈도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영아와 놀이에서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절한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별 가정방문 및 비디오 녹화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 표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 지역 안에서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통하거나 가정에 연구를 의뢰하여 눈덩이 표집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이 된 영아 어머니가 고학력자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디오 촬영에 있어서 영아와 어머니가 연구자와 카메라의 존재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카메라나 연구자를 의식하여 평소와는 다르게 영아와 놀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찰에 임하거나 일회가 아니라 반복적인 촬영, 카메라를 의식할 수 없는 곳에 미리 장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이 가지는 의미 또한 크다. G. Kim(2000)의 연구에서도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은 영아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J. Noh(201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언어적 행동에 비언어적인 행동인 가리키기(pointing)을 연합함으로써 영아와의 공동주의를 형성하여보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으로서 의미가 컸다고 보고하며,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는 비언어적 행동과 언어적 행동을 함께 시도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반응성을 측정한 도구에서도 영아와 눈을 마주치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에 대한 항목이 있었으나 어머니가 나타내는 비언어적 행동을 반응성으로 포함하여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함께 비언어적 행동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구조화된 실험실 상황에서 이뤄지는 놀이 관찰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영아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와 영아 놀이 상황을 관찰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황을 분석을 하려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유형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별로 영아의 상징놀이에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영아의 상징놀이 촉진하기에 바람직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만 2세 영아의 상징놀이는 평균적으로 타인을 향한 상징행동을 보이는 수준이었으며,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은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유형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놀이할 때 놀이행동에 따라 반응적인 행동을 보이고, 영아의 놀이 행동과 놀이 상황에 적절한 언어 유형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하는 것이 영아의 상징놀이 행동을 촉진시키고, 상징 놀이수준을 높이는 데에 중요하다.

REFERENCES

- Alton, C. (2011). Facilitating infants' sensory development. *Exchange*, 197(1), 50-54.
- Belsky, J., & Most, R. (1981). From exploration to play: A cross-sectional study of infant free play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630-639.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Hahn, C. S., & Haynes, O. M. (2008). Maternal responsiveness to young children at three ages: Longitudinal analysis of a multidimensional, modular, and specific parenting construct. *Developmental Psychology*, 44(3), 867-874.
- Brazelton, T. B., & Cramer, B. G. (1990). *The Earliest Relationship: Parents, infant, and the drama of early attachment*. Cambridge, MA: Perseus Books.
- Bredenkamp, S., & Copple, C. (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Washington D. C.: NAEYC.
- Bretherton, I. (1992). Social referencing, intentional communication, and the interfacing of minds in infancy. In S. Feinman (Ed.), *Social referenc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 infancy* (pp. 57-77). New York, NY: Plenum Press.

- Bruner, J. S. (1983). Play, thought, and language.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60(3), 60-69.
- Caldera, Y. M., Huston, A. C., & O'Brien, M. (1989). Social interactions and play patterns of parents and toddler with feminine, masculine, and neutral toys. *Child Development*, 60(3), 70-76.
- Calkins, S. D., & Johnson, M. C. (1998). Toddler regulation of distress to frustrating events: Temperamental and maternal correlate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1(5), 379-395.
- Carew, J. V. (1980). Experience an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 young children in home and in day car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1), 1-89.
- Cho, S. (2010). *The relation of toddler's playfulness, play level and maternal verbal inter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ohen, S. E., & Beckwith, L. (1979). Preterm-infant interaction with the caregiver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competence at age two. *Child Development*, 50(6), 767-776.
- Conner, D. B., & Cross, D. R. (2003).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presence, efficacy and stability of maternal scaffolding during informal problem-solving interac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2), 315-334.
- Cross, T. G. (1984). Mother's speech adjustments: the contribution of play maturity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14(1), 147-160.
- Damast, A.,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1996). Mother-child play: Sequential interactions and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belief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7(6), 1752-1766.
- De Wolff, M. S., & van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571-591.
- Dixon Jr, W. E., & Smith, H. P. (2003). Who's controlling whom? Infant contributions to maternal play behavior.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2(2), 177-195.
- Dixon, W., & Shore, C. (1993). What shall we play? Play content as a vehicle for parent-infant interaction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6(11), 121-125.
- Dunham, P., & Dunham, F. (1992). Lexical development during middle infancy: A mutually driven infant-caregiver proc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414-420.
- Dunn, J., & Dale, N. (1984). I and daddy: 2-year-old's collaboration in joint pretend with sibling and with mother. In I. Bretherton (Ed.), *Symbolic play: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pp.131-158). New York, NY: Academic.
- Erickson, S. J., Montague, E. Q., Maclean, P. C., Bancroft, M. E., & Lowe, J. R. (2012). Differential ethnic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flexibility and play sophistication in toddlers bor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5(4), 860-869.
- Faver, J. M., & Wimbari, S. (1995). Indonesian toddler's social play with their mothers and older siblings. *Child Development*, 66(5), 1493-1503.
- Fein, G. G. (1981). Pretend play in childhood: An integrative review. *Child Development*, 52(4), 1095-1118.
- Fein, G. G., Johnson, D., Kosson, N., Stork L., & Wasserman, L. (1975). Stereotypes and preferences in the toy choices of 20-month-old boys and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11(4), 527-528.
- Fenson, L. (1984). Developmental trends for action and speech in pretend play. In I. Bretherton (Ed.), *Symbolic play: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pp.249-269). New York, NY: Academic.
- Fiese, B. H. (1990). Playful relationship: A contextual analysis of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symbolic play. *Child Development*, 61(6), 1648-1656.
- Frodi, U., Bridges, L., & Grolnick, W. (1985). Correlates of mastery behavior: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40(1), 21-31.
- Go, J. (2003). *Mother's linguistic types in activity of reading picture-books and babies' reac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Gyeonggi, Korea.
- Gowen, J. W. (1995). The early development of symbolic play. *Young Children*, 50, 75-81.
- Haight, W. L., & Miller, P. J. (1993). *Pretending at home: Early development in a sociocultural context*.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arrist, A. W., & Waugh, R. M. (2002). Dyadic synchrony: Its structure and function in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 Review*, 22(2), 555-592.
- Hoff-Ginsberg, E. (1991). Mother-child conversation in different social classes and communicative settings. *Child Development*, 62(4), 782-796.

- Honig, A. S. (2006). What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ers learn from play: 12 ideas. *Montessori Life*, 1, 16-21.
- Howes, C., & Smith, E. W. (1995). Relations among child care quality, teacher behavior, children's play activities, emotional security, and cognitive activity in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4), 381-404.
- Howes, C., Unger, O., & Seigner, L. B. (1989). Social pretend play in toddlers: Parallels with social play and with solitary pretend. *Child Development*, 60(1), 77-84.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 (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Glenview,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Kim, G. (2000). *The toddler-mother interaction types and toddler language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S. (2002). *Representational aspect of early pretense: The relation between the symbolic level of present play and theory of min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 Chae, Y. (1999). Mother-infant book reading in the hom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2), 125-138.
- Kim, M., & Gwak, K. (2004). Responsiveness and initiative through infant-mother interaction in the social toy pla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19-35.
- Kim, M., Hyun, O., & Rah, J. (2007).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infant and mother inter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5), 167-183.
- Kim, M., & Sung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language and pla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5), 19-34.
- Ko, J., & Lee, S. (2010).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responsiveness while playing with their two-year-old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2), 147-165.
- Kochanska, G. (1997).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1), 94-112.
- Laakso, M. L., Poikkeus, A. M., & Lyytinen, P. (1999). Shared reading interaction in families with and without genetic risk for dyslexia: Implications for toddler's language develop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8(2), 179-195.
- Landry, S. H., Smith, K., Swank, P. R., Assel, M. A., & Vallet, S. (2001). Does early responsive parenting have a special importance for children's development or in consistency across early childhood necessary? *Developmental Psychology*, 37(3), 387-403.
- Lee, M. (1999). *Mother-infant interactions in social ga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 Kim, M. (2013). The relationships among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on, maternal verbal behaviors and infants' acquisition of vocabular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2), 1-25.
- Lim, Y. (2002). *Korean infants' vocabulary development and mothers' verb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yytinen, P., Poikkeus, A. M., Eklund, K., & Lyytinen, H. (2003). The play and language behavior of mothers with and without dyslexia and its association to their toddlers'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6(1), 74-86.
- McGee, L. M., & Richgels, D. J. (1996). *Literacy's beginnings: Supporting young readers and writers*. Seoul: Hakjisa.
- Manning, K., & Sharp, A. (1997). *Structuring play in the early years at school*. London, London: Ward Lock Educational.
- McDonald, L., & Pien, D. (1982). Mother conversational behavior as a function of interactional int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9(2), 337-358.
- McLoyd, V. C. (1980). Verbally expressed modes of transformation in the fantasy play of black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6), 1138-1139.
- Min, M., & Lee, S. (2004). Level of pretend play and comprehension of pretense among 2- and 4-year-ol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337-354.
- Moon, H. (1996).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changes in pretend play from 20 to 35 months of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Morrissey, A. M., & Brown, P. M. (2009). Mother and toddler activity in the zone of proximal devel-

- opmental for pretend play as a prediction of higher child IQ. *Gifted Child Quarterly*, 52(2), 106-120.
- Newland, L. A., Roggman, L. A., & Boyce, L. K. (2001). The development of social toy play and language in infancy.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4(1), 1-25.
- Nicolich, L. (1977). Beyond sensorymotor intelligence: Analysis of symbolic maturity through analysis of pretend play. *Merrill-Palmer Quarterly*, 23(1), 89-99.
- Nielson, M. & Christie, T. (2008). Adult modeling facilitates young children's generation of novel pretend act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1), 151-162.
- Noh,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fant book-reading behaviors and infant's vocabulary aged 12 to 18 month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Noll, L. M., & Harding, C. G. (2003). The relationship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he child's development of symbolic pla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6), 557-570.
- Olson, S. L., Bates, J. E., & Bayles, K. (1984).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cognitive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166-179.
- Roggman, L. A., Cook, G., Innocenti, M. S., Jump Norman, V., & Christiansen, K. (2009). *PICCOLO(Parenting Interactions with Children: Checklist of Observacions Linked to Outcomes)*. Logan, UT: Utah State University.
- Rogoff, B., Mistry, J., Radziszewska, B., & Germond, J. (1992). Infants' instrumental social interaction with adults. In S. Feinman (Ed.), *Social referenc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 infancy* (pp. 57-77). New York, NY: Plenum Press.
- Rossetti, L. M. (2001). *Communication intervention: Birth to three*. Oshkosh, Wisconsin: Singular.
- Shin, E., Kim, M., Shin, D., Lee, J., & Choi, S. (2002). *Play and young children*.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publisher.
- Singer, J. L. (1973). *The child's world of make-believe*. New York, NY: Academic Press.
- Snow, C. E. (1972). Mothers'speech to children learning language. *Child Development*, 43(3), 549-565.
- Stern, D. N. (2002). *The first relationship: Infant and mo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1991). Individual variation, correspondence,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 and toddler play. *Infant and Development*, 14(1), 143-162.
-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1995). Variation in children's exploration, nonsymbolic, and symbolic play: An explanatory. In C. Collier & L. Lipsett (Eds.), *Advances in infancy research*. Norwood, NJ: Ablex.
-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2002). Maternal responsiveness and early language acquisition.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29(1), 89-127.
- Tomasello, M., & Farrar, M. J. (1986).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Child Development*, 57(5), 1454-1463.
- Trawick-Smith, J. (2007). *Interactions in the Classroom*. Columbus, OH: Merrill Prentice Hall.
- van Hoorn, J., Nourot, P. M., Scales, B., & Alward, K. R. (2003). *Play at the center of the curriculum*. Columbus, OH: Merrill Prentice Hall.
- Vygotsky, L. S. (1976). Play and its role in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child. In J. S. Bruner, A. Jolly, & K. Sylva (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pp. 537-554). New York, NY: Basic.
- Walker-Andrews, A., & Kahana-Kalman, R. (1999). The understanding of pretence across the second year of lif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523-536.
- Woo, S. H. (2004). *Research about make-believe factors in symbolic play of the classes with one and two-year-ol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E. (2010).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play belief, mother's verbal interaction and toddler's play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July 15. 2016

Revised: September 23. 2016

Accepted: October 23. 2016